


제 3 회


# 사랑한데이 우리만

멋글씨 공모전

수상작 모음집

주최 :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주관 :  영남대학교 | 국어문화연구소 · 국어문화원



## 멋글씨 전시장을 열며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국어문화원에서는 경상북도와 함께 2019년 제3회 ‘사랑한데이 우리말’ 멋글씨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멋글씨 공모전은 대학생·일반부, 중·고등부, 초등부·유치부의 세 부문으로 열렸습니다. 벌써 세 번째 대회인 만큼, 이 가을 잔치가 소문났나 봅니다. 올해도 다양한 세대의 지역민들이 모두 참가해 주셨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귀한 작품 14편을 받았습니다. 이를 지원서(10점)와 캘리그라피(10점)로 나누어 점수를 매겼습니다. 훌륭한 작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가장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들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심사 결과 작품 5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시다만, 작품마다 가진 훌륭한 의미를 보고서도 다 수상하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공모전은 일상적으로 써 온 우리말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가와 독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어 내년 2020년도 제4회 ‘사랑한데이 우리말’ 공모전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을 보내야 하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저기쯤 어딘가서 2020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 뜻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2월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국어문화원장 이 미 향





## 전체 부문



**박민경**(경산 사동고등학교)

### 1. 단어 선정

한글은 나무처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지난 500여 년 동안 곳곳이 우리의 정신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중세 국어에서 현대국어에 오기까지 많은 변화와 장애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한자리 한곳에 서 있는 나무를 한글로 표현하고 싶어 '한글 나무'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 2. 멧글씨(작품) 제작 취지

한글을 나무로 표현하기 위해 자음과 모음을 활용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은 밑동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에서 울창한 나무의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 경산 시민들의 손도장을 받았습니다. 형형색색의 손도장은 파릇파릇한 잎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독도수호견 기대회에 참가한 경산 시민들의 참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한글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받은 손도장이 한글 나무를 우거지게 해주었습니다.



임선영 (영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1. 단어 선정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무료한 삶속에서도 각자가 마음에 품은 꿈을 갖고 살아간다면 행복한 삶이 아닐까? 꿈이 없다면 매일 매일이 똑같은 하루지만 꿈을 품고 산다면 하루하루가 자신이 품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하루일 것이라 생각한다.

‘꿈꾸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문구를 통해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다.

2. 멋글씨(작품) 제작 취지

꿈이라는 단어는 나를 설레게 한다.

매일 학교, 아르바이트, 도서관을 반복하며 무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인 나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하지만 미래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꿈을 품고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

매일 밤 달을 보며 오늘 하루도 내 꿈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음을 되돌아보곤 한다. 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가 나와 같다고 생각한다.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지만 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각자가 자신이 품은 꿈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꿈꾸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글귀가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글귀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종어제훈민정음

어어는 학성을 위하야  
내 이름을 어긋히 내기 스물 여덟 자를  
사로 믿었니 사랑하든 후하여 주하소서  
남로 후에 변한 크하소서 동쪽 금이니와  
그후

이민지 (영천 성남여자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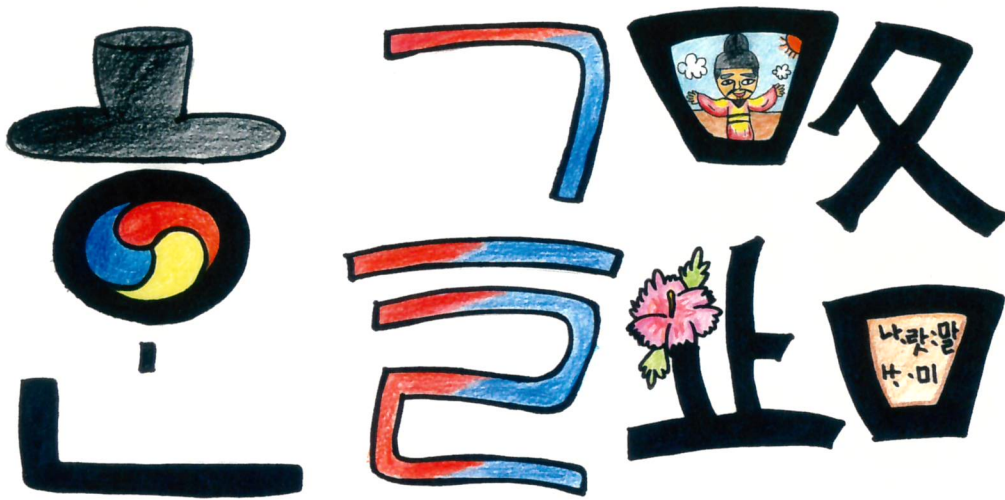
1. 단어 선정

공모전 주제가 '한글'인 것을 보고 한글과 관련된 것 중에 어떤 것이 한글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한글의 시초인 '훈민정음'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 한글의 시초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보다 훌륭한 글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세종어제훈민정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멋글씨(작품) 제작 취지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원래 제가 쓴 것 보다 길기에 종이에 그 위대함을 이루 다 담을 순 없을 것 같아 내용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간추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간추린 '세종어제훈민정음'을 보고 세종대왕님께 서 이룩하시고자 하셨던 바를 쉽게 알고 한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손은영 (경북대학교)

1. 단어 선정

1446년 반포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글이 걸어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이어져야한다는 의미로 '한글路'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과거의 한글의 형태와 현재의 한글의 형태는 다르고 같은 말이라도 과거의 한글의 의미와 현재의 한글의 의미는 다릅니다. 다가올 미래에서도 그 형태와 의미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우리 한글이 지금껏 걸어왔던 길이며 앞으로도 마주하게 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향후 한글이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자부심을 제고하고 싶습니다.

2. 멋글씨(작품) 제작 취지

중세 국어를 사용해 한글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전통 문양을 넣어 친근감을 돋보였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조화를 이루어 태극기, 한국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게 했으며 무궁화를 그려 한글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꽃길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글 사이에 세종대왕 캐릭터를 그려 한글을 창제한 사람이 세종대왕임을 강조하였으며 한글하면 흔히들 떠올리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있는 '나랏말싸미'를 인용했습니다.



물오름달 하루


김예은 (구미 금오여자고등학교)

1. 단어 선정

한글로 이루어진 순우리말로 표현된 낱자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인만큼 3월 1일을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 멋글씨(작품) 제작 취지

독학한 캘리 그래피를 이용하여 3월 1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오름달 하루를 표현했습니다. 태극기의 대표적인 색인 검은색을 사용하여 글씨를 썼고, 빨간색과 파란색을 이용하여 글씨 아래에 선을 그려 태극기 느낌을 주었습니다.

 **영남대학교** | 국어문화연구소 · 국어문화원